

발행인 정인보

발행일 2022년 1월 3일

발행처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편 집 교육과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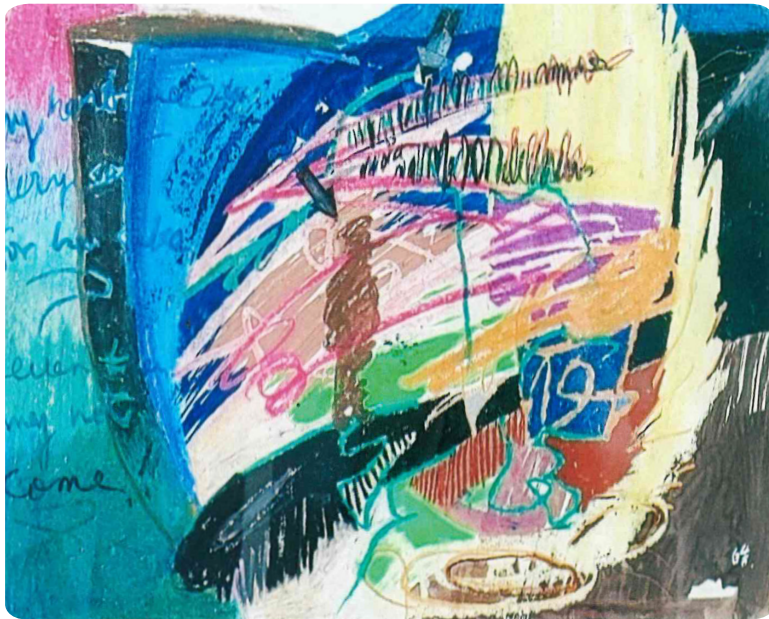
'탄소Zero' 실천으로 종이인쇄물을  
발간하지 않습니다

1 월의

positive Gyo6 freecycle 2021 jan  
경북 선생님들의 감동적인 교육 실천 이야기좋은Gyo6  
나눔

‘행복 천재들의 세상이 온다’

## “행복을 가르쳐 주는 선생님 이야기”



자화상 인평중학교 교장 손동호

## SUMMARY | 요약

## 01 — 행복은 내 마음에서 출발한다.

행복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가질 수 없는 것에 화를 낼 것인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해야 할 것인지는 자신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희망 전도사 닉 부이치치 ‘행복에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선생님들도 행복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하고 방법을 찾아 실천하기를 권합니다. 제가 소개하는 <행복 교과서>와 함께 나와 가족, 친구, 이웃이 더불어 행복해지는 방법을 익혀 선생님 교실과 학교에 행복의 씨앗을 뿌려 건강한 학급을 만들어 보시길 기대합니다.

## 02 — 선생님! 행복 수업만 하면 행복할까요?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인이 삶의 만족도와 긍정적 정서가 낮아져 행복하지 않다고 한다. 가장 큰 원인은 인간관계의 친밀함에서 얻는 소소한 행복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대 행복연구센터장이신 최인철 교수님의 과학적 근거에 바탕을 둔 학문적 이론과 교사의 수업 실천 노력으로 학교 교육과정에 접목할 수 있는 행복 수업이 마련되었다. “교사가 행복해야 학생이 행복하다.”라는 것을 많은 선생님이 경험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수업 실천 사례를 소개한다.

## 03 — 오늘도 특성화고에서 행복한 교사로 거듭나는 중

신규를 벗어나면 나아질 줄 알았다. 3년이 지나면, 5년이 지나면 나만의 노하우도 생기고 자신감 있는 뭔가 하나는 생길 줄 알았다. 교단에 서는 날이 두려운 날은 없을 줄 알았다. 잘하고 싶다. 좋은 교사가 되고 싶다. 고민하고 계획하고 재미있게 신나게 달리면서도 문득문득 주저한다.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 걸까. 태양은 뜨고 새날은 온다. 오늘도 별빛 아래 충충 고군분투하는 나를 응원한다, 오늘도 행복한 교사로 거듭나려는 나를 응원한다.



## 행복은 내 마음에서 출발한다

서정애 포항 양서초 수석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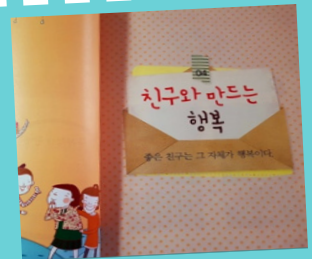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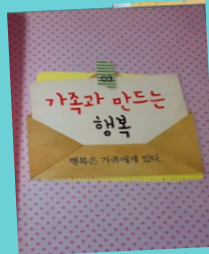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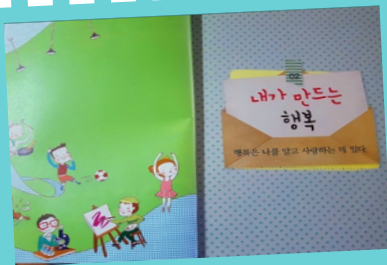
### 01 행복 교육이란?

아이들의 지적인 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노력, 자신의 목표를 위해 순간의 유혹을 참아낼 수 있는 자제력과 긍정적인 태도 기르기를 아울러 행복 교육이라고 합니다. 학교에서 행복을 가르치는 것이 학업 의욕을 떨어뜨린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공부 잘하면 행복, 돈을 잘 벌면 행복이라는 결과물이 아닙니다. 행복이란 지적인 능력과 자제력, 긍정적인 태도를 전제로 합니다.

고통을 경험하지 않는 것도 만족감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행복 교육의 중요한 가치입니다.

### 02 행복 교과서 미리 보기

행복은 누가 만드나요?



행복은 무엇으로 만드나요?





## 행복은 어떻게 만드나요?



**03** 초등학교 아동을 위한 행복 교과서는 철학, 심리학, 교육학에 근거하여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어린이상을 지향합니다.  
단원별로 정리하면 표와 같습니다.

범주	대단원	행복 덕목
행복의 개념	I. 행복이란 무엇인가?	1. 행복이란 무엇인가?
어떤 마음으로	II. 마음의 자세(누가)	2. 내가 만드는 행복
		3. 가족과 만드는 행복
		4. 친구와 만드는 행복
무엇을	III. 삶의 모습(무엇을)	5. 목표세우기
		6. 건강 지키기
		7. 몰입하기
누구와	IV. 관계 증진법(어떻게)	8. 감사하기
		9. 나누기
		10. 사과하기

## 04 실천 사례

### 가. 교사 대상

‘그림책을 활용한 행복 수업’ 주제로 교육 연구 동아리 활동을 했습니다. 행복 교과서 단원별 관련 그림책을 선정한 후, 매월 모여서 그림책을 읽고 활동 및 소감을 나누었습니다. 회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행복연구센터에서 제공한 동영상과 수업 자료를 공유했습니다.

본교 교육동아리 활동과 행복 수업 외부 강사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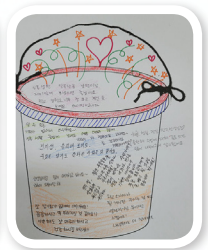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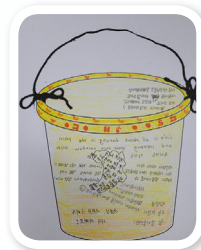


교장 선생님께서도 참여하셔서 격려해 주셨습니다. (왼쪽) 읍면지역 소규모학교에서 선생님들과 <사과하기> 주제로 교사 개인의 마음 아픈 사례로 종이비행기 선플 날리기를 했습니다. 모두 ‘힐링’ 시간이었다며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오른쪽)

### 교육연구동아리 활동/서로의 강점 찾아주며 행복 양동이 채우기

그림책을 읽고 프린트된 행복 양동이에 각자의 강점을 찾아서 써주었습니다.

돌려쓰기를 하며 자신의 것을 받으면 끝납니다. 생각지도 못한 의외의 강점을 읽으며 그것을 살려 목표가 있는 삶을 이끌겠다고 했으며 치유의 시간에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 <활동 사례>

행복이란 무엇인가?/그림책  
<날마다 행복해지는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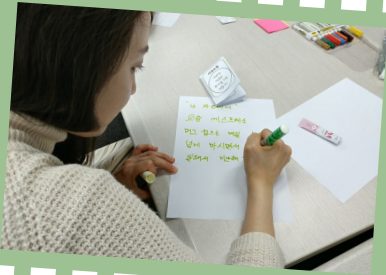




## 실시방법

모둠별로 자신이 가장 행복했던 때를 포스트잇에 써서 행복 밥상을 차립니다. 다른 모듬의 밥상을 보며 호감 가는 포스트잇에 스티커를 붙입니다. 스티커를 가장 많이 받은 선생님을 발표하며 격려합니다. 잠깐이지만 '행복'을 공유하며 힐링 타임을 가졌습니다./외부 강사 활동

사과하기와 용서하기/그림책<사자가 작아졌어>/  
선플 날리기 활동/행복연구센터 심화과정반 강사 활동



## 실시방법

### 선플비행기 날리기

사과를 제대로 하지 못했거나 용서하지 못 할 일 중 한 가지를 골라 A4용지에 적고 종이비행기를 접습니다. 비행기 겉면에 자신만이 알 수 있는 기호 표시를 한 후 신호에 따라 날립니다. 주운 비행기를 펼쳐 위로의 글이나 제안 방법을 쓴 후 신호에 따라 3번 정도 더 날리고 댓글을 단 후, 겉면 표시를 보고 자신의 종이비행기를 찾습니다. 의외로 선플 내용에 위로가 되어 마치 상담받은 기분이라고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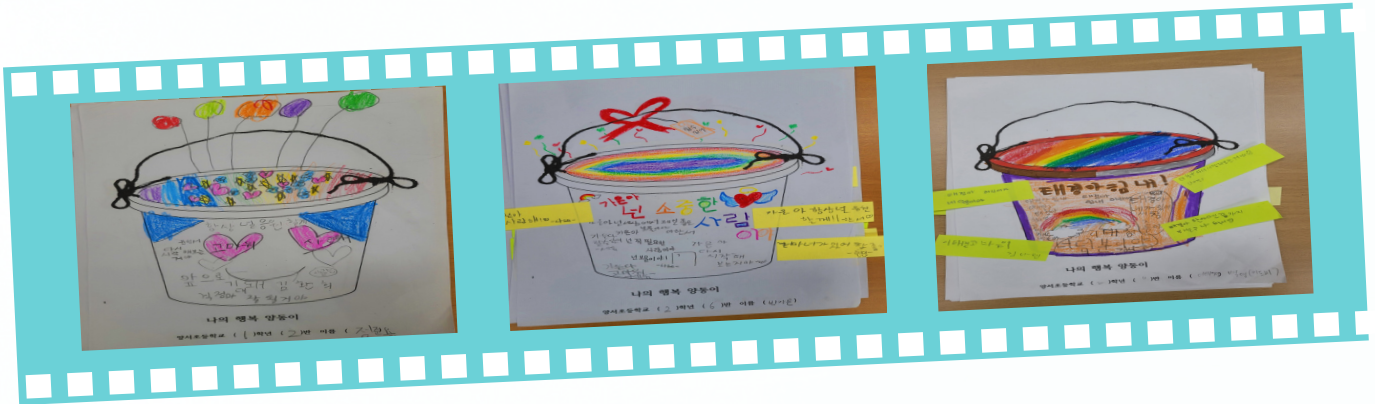
- 울진교육지원청/행복 수업 디자인하기 강사 활동/<사과하기> 진정한 사과하기로 학교폭력 예방하기에 주안점을 두어 신규교사들의 호응이 컸습니다. 자료 요청한 교사들에게 공유했습니다.



## 나. 학생 대상

1, 2학년 창제 시간 행복 수업 시행했습니다. 1~2차시에 걸쳐 그림책 읽고 하브루타 질문 놀이하기, 학습지 활동을 통해 '행복 교과서' 단원에 자연스럽게 접근 후 매 차시 학생들의 생활에서 적용하기 과제를 냈습니다.

### 1) 행복이란 무엇인가?/그림책<날마다 행복해지는 이야기>, <나는 행복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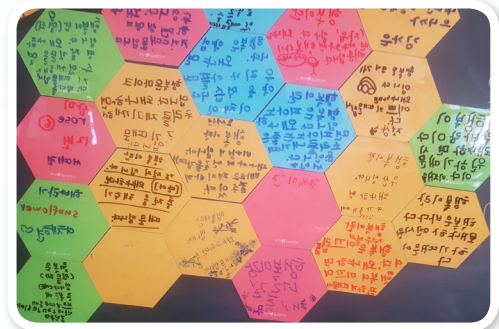


## 실시방법

양동이 그림에 행복 말 서로 채워주기 교사 사례와 같습니다.

- 그림책을 읽고 나만의 '행복' 정의하기. 비유 카드를 골라 '행복이란?'을 육각 보드 판에 정의해서 씁니다. 질판에 붙여 아이들과 함께 공유합니다.
- 내가 행복할 때를 써보고 질판에 붙여 유목화 시켜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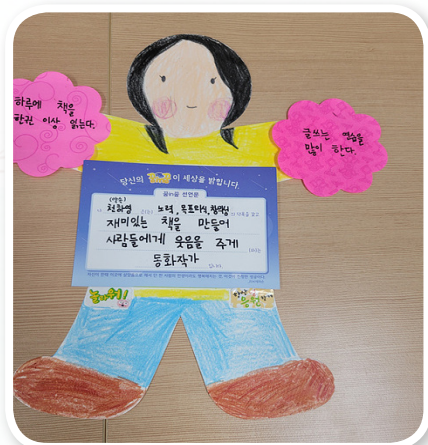
### 2) 내가 만드는 행복/그림책 <나는 행복해요>



### 3) 목표 세우기/그림책 <난 내가 좋아>



친구들을 만나 꿈 in 꿈 선언하기



You&I 카드에 꿈 선언문 쓰기.  
구체적인 실천 계획 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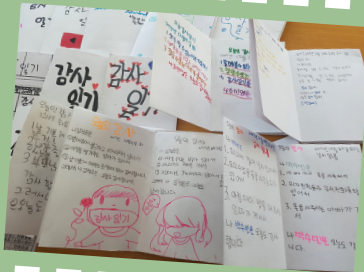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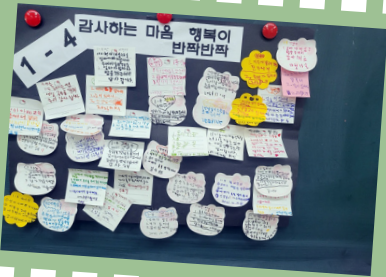


## 실시방법

그림책을 읽고 주인공 따라 하기: 마인드 업 문구를 참고해서 자신에게 힘이 되는 말을 친구들 앞에서 발표합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주인공처럼 자신을 칭찬하기로 다짐합니다. 틈날 때마다 아이들에게 자신의 장점 발표하기를 하며 자존감을 높입니다.

### 4) 감사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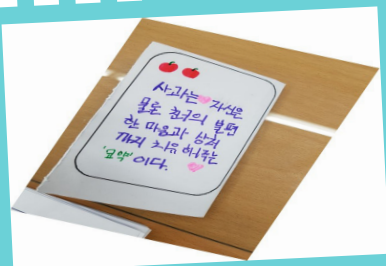
감사하기-감사 쪽지, 감사 일기장, 감사 촛불 만들기/파워포인트, 동영상 등 수업 자료/행복연구센터 자료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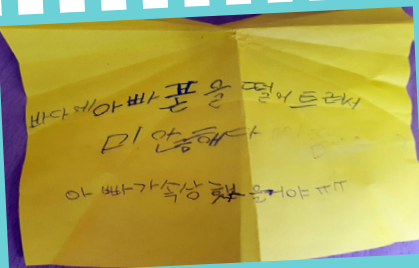
## 실시방법

‘감사가 곧 행복입니다.’ 감사하기 단원을 살펴본 후 감사 쪽지 쓰기, 감사 일기장(팝업북) 만들기, 감사 촛불 만들기 합니다. 로버트 에먼스 교수의 감사의 긍정적 연구 결과 중 ‘목표를 세워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된다’를 강조하며 수업 전 감사 사례를 발표합니다. 한 학기 동안 감사 일기를 꾸준히 쓴 학생이 있어서 전체 앞에서 크게 격려하며 감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나와 가족, 주변 인물, 사물, 자연 등 주변에 감사할 대상은 많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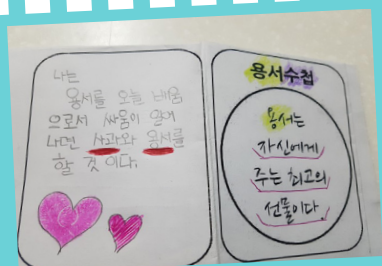
올바른 사과와 용서하기/그림책 <사자가 작아졌어><코끼리와 생쥐>



사과 수첩/그림책  
<사자가 작아졌어> 독후 활동



선물 종이비행기 날리기/잘못했던 일 쓰고 접어서 종이비행기 날린다. 주운 비행기 펼쳐 보고 선물 달아준 후 다시 날린다. 4~5회 반복한다.



용서 수첩/그림책  
<코끼리와 생쥐> 독후 활동



## 실시방법

사과는 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입니다. 상대가 괜찮다고 할 때까지 하는 것이 진정한 사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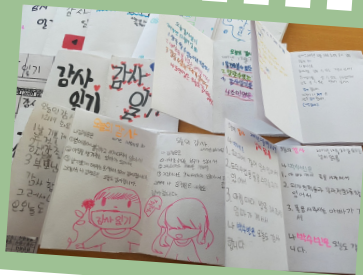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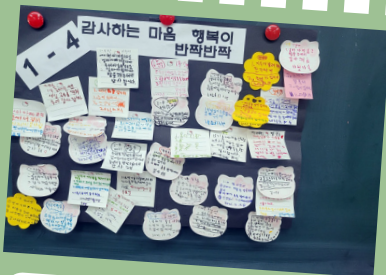
- 〈사자가 작아졌어〉에는 사슴이 괜찮다고 할 때까지 용서를 구하는 사자가 나옵니다. 그 장면에서 ‘단계별 사과하기’로 역할극을 하며 사과와 용서에 대해 체험하기를 했습니다.
- 사과 수첩과 용서 수첩(팝업북)을 만들어 생활화했습니다. 수업 소감에서 진정으로 사과받지 못한 일과 제대로 용서를 구하지 못한 일들을 나누며 화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미안해, 됐지?’가 아닌, 상대가 괜찮다고 할 때까지 진정한 사과와 진심으로 하는 용서는 학교폭력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5) 가족과 만드는 행복/그림책 〈돼지 책〉



울진 교육청 관내 초등학교/오후 6시 30분, 퇴근한 부모들과 함께 활동  
행복 교과서 〈가족과 만드는 행복〉 살펴보고 그림책 〈돼지 책〉 독후 활동하고 소감 나누기

### 5) 가족과 만드는 행복/그림책 〈돼지 책〉



창제 시간에 학교 뒷산에 가서 자연 관찰하며 친구와 친밀감 쌓기 및 물입하기



## 실시방법

- 무지개 물고기 독후 활동으로 내가 나눌 수 있는 것(내가 잘하는 것, 축구 패스하기, 수학 풀기, 종이접기, 그리기 등)을 스티커에 써서 ‘무지개 물고기’ 그림에 붙입니다. 친구들과 만나 스티커를 하나 주고 하나 받습니다.
- 학교 인근 뒷산이나 운동장에서 핸드폰 카메라로 자연물을 조합하여 새로운 의미를 만드는 사진을 찍으며 **몰입하기**를 경험합니다(**자연 미술**). 친구들과 공동작품을 권장하니 관계 돈독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제일 선호하는 활동입니다.

## 05 7년간 행복 수업을 진행하면서.

첫 만남에서 아이들에게 ‘수석선생님, 행복 선생님’으로 소개합니다. 아이들은 대개 ‘행복 선생님’으로 부르고 저도 그렇게 불리길 좋아합니다. 아이들의 “행복하세요. 행복 선생님” 밝은 모습과 목소리로 인사말을 들으면 좀 기분 나쁜 일이 있더라도 표정에 절로 환해집니다.

〈감사하기〉, 〈사과하기〉 단원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며 강조했습니다. 특히 전임지에서 1년 간 감사 일기를 꾸준히 쓴 학생이 여러 명 있어 보람되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불우한 가정환경임에도 밝은 모습으로 학교생활을 하는 것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사과하기〉 단원에서 사과는 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라며 진정한 사과를 강조했습니다. 그림책 〈가시 소년〉 독후 활동으로 학교폭력 경험을 나누며 ‘용서하기’는 학교폭력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자부합니다.

그 외 행복 교과서로 진행한 단원별 행복 수업의 긍정적인 영향을 보며 행복 수업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며 아이들 변화를 통해 제가 배운 것이 더 많았습니다.

의미 있는 행복 수업이 되자면 단순히 흥미 있는 활동만이 아닌, 학문적 이론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대 행복연구센터’에 공유 가능한 자료가 많습니다. 모든 활동 시작 전에 핵심어를 질문으로 던지며 끊임없이 되새기고,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삶에 반응하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선생님! 행복 수업만 하면 행복할까요?

강미숙 사동중학교 수석교사

### 01 행복 수업을 시작하며

올해 첫 수업 시간부터 줄곧 1학년 어떤 반 친구가 던지는 질문입니다. “선생님! 행복 수업만 하면 행복할까요?” 다시 질문했습니다. “○○친구가 진정 원하는 행복은 어떤 것 일까요?” 친구는 대답합니다. “선생님!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자유롭게 놀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 그것도 행복 일 수 있겠지만, 편하게 노는 것만이 행복이 아님을 알아볼까요?”. 이렇게 시작한 행복 수업은 올해도 만족스러운 결실을 거두었다.

해마다 3월이면 행복 수업으로 학생들과 래포를 형성한다. 2020년에는 학기 초 코로나19로 인하여 학생들을 만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팬데믹 상황이 전 세계인의 삶을 모습을 바꾸어 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생활해야 한다. 또한 많은 사람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다.

긍정심리학에서도 ‘성공해야 행복하다.’에서 ‘행복하면 성공한다.’라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서울대 행복연구센터에서 발간한 행복 교과서는 학생들이 ‘행복에 대한 지식, 태도, 행동 기술을 익혀 적극적으로 자신의 장점을 찾고 이를 활용하여 열정적으로 자신이 하는 일에 몰입하고, 자신의 잠재 능력을 계발하며,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긍정적인 인성을 계발’에 목

적을 두고, 최근 긍정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기초로 만들어졌다. 먼저 행복 수업이 무엇인지 생소하신 선생님들께 서울대 행복연구센터의 “교사와 학생이 모두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대한민국 행복 교육 프로젝트 사업을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행복 교과서(중학생용, 초등학생용)와 행복 교육 교사 지도서, 수련장, 동영상과 자유학기제 17차시 수업과정안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교사들의 행복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기초·심화 워크숍 및 교사 행복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행복에 관한 실천적 연구 및 지속 가능한 행복 연구를 위해 50년 종단 연구를 실천하고 있으며, 올해에 실시하고 있는 ‘아동 청소년의 행복과 행복 수업에 관한 연구’에 본교 1학년 17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으며, 주 1회 행복 수업을 하고 있다.

행복 교과서는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수업을 출발 질문으로 시작하여 ‘무엇을’, ‘어떻게’, ‘누구와’라는 3개의 과제로 표와 같이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역량 중심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범주	대단원	행복 덕목
행복의 개념	I. 행복이란 무엇인가?	1. 행복이란 무엇인가?
어떤 마음으로	II. 마음의 자세	2. 관점 바꾸기
		3. 감사하기
		4. 비교하지 않기
무엇을	III. 삶의 모습	5. 목표 세우기
		6. 즐기하기
		7. 몰입하기
누구와	IV. 관계 증진법	8. 나누고 베풀기
		9. 관계를 돈독히 하기
		10. 용서하기

2012년부터 시작한 기초 연수(8월)에 참여하고, 그 해 2학기부터 지금까지 행복 수업하고 있다. 도덕과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5. 행복한 삶을 첫 단원 수업으로 진행하였고, 자유학년제 1학기 진로 탐색 수업(‘어떤 마음으로’, ‘무엇을’)과 2학기 자율활동 수업(‘누구와’)을 진행하였다.

## 02 학생이 추천하는 행복 교실 운영 사례

### 1 행복이란 무엇인가?

“행복에 관하여”(유튜브 영상, 서울대 행복연구센터장이신 최인철 교수님 강의)라는 영상을 시청하고 학생들에게 행복한 삶은 육체와 정신(영혼)이 모두 건강해야 함을 알려 주기 위해 먼저 육체의 건강을 위해 3대 영양소 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필요하듯이 영혼(정신)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3대 영양소는 자율성(탄수화물), 유능감(단백질), 친밀한 관계(지방)가 중요한 요소임을 3대 영양소와 비교하여 설명하고 자유로운 삶을 위해 관점 바꾸기, 감사하기, 비교하지 않기를 통해 소중한 자아정체성을 찾는 수업을, 유능감을 위해 목표 세우기, 즐기하기, 몰입하기를 통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는 수업을,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해 관계를

돈독하기, 나누고 베풀기, 용서하기 수업이 필요함을 설명하였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행복한 삶을 위해 필요한 자신만의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찾아보는 수업 내용을 소개한다.



## 가. 행복 스토리텔링

행복하면 떠오르는 글자, 가정(가족)하면 떠오르는 글자를 과자로 적어보게 하였다. B4용지를 활용하여 물엿과 과자를 이용하여 글자로 고정하고, 모둠원들과 1분 스토리텔링을 하고, 모둠원 발표가 모두 끝나면 행복했던 순간을 천천히 음미하면서 과자를 떼어먹는 시간을 가졌는데 학생들

의 활동 소감문에는 달콤한 꿀맛이 행복을 두 배로 증가시켜주었다고 말했다. 또 사진으로 촬영하여 학급 전체 앞에서 발표하도록 세 줄 정도 설명할 내용을 적어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는 공언을 통해 실천 의지를 다지고 실제 도덕적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도덕 수업을 진행하였다.

## 나. FAT(푸드아트테라피) 수업을 통한 행복

서울대 행복연구센터에서 제공한 활동지를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현재 행복한 삶을 위해 하고 싶은 일을 과자를 활용하여 그림으로 표현하게 하고, 설명을 적고 모둠원들과

서로 자기 작품을 소개하고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즐거운 시간을 함께 공유하는 행복을 누리게 하였다. 소개가 끝나면 과자를 맛있게 먹으며 음미하기 수업도 함께 진행하였다.

## 다. 자신만의 행복 공책 만들기

A4 용지에 행복하면 떠오르는 것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하여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자신만의 행복 공책을 만들기 하였다. 자신이 직접 제작한 작품을 제일 앞장 표지로 하여 1년 동안 공부할 학습지와 함께 직접 바인더를 활용하여

공책으로 만드는 과정은 호기심과 재미로 학생들의 행복은 시작되었다. 너무 신기하다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통해 교사도 행복했다.



행복 스토리텔링



FAT 행복 수업



행복 노트 표지



행복 노트 제본



## 2 어떤 마음으로(마음의 자세)

유럽의 Ruut Veenhoven이라는 수학자가 1984년에 내린 행복의 정의를 살펴보면 “행복은 한 개인이 자기 삶의 전반적인 질에 대해서 얼마나 긍정적으로 평가하는가의 정도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한 개인이 자기 삶을 얼마나 좋아하는가의 정도이다.”라는 정의에 따라 OECD 국가 중 삶의 만족도가 비교적 낮은 우리 학생들에게 행복한 삶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행복한 삶을 위한 관점, 습관, 문화를 안내하는 행복 수업을 통해 자신이 하는 경험에 대해 긍정적 정서를 느끼도록 지도한 사례이다.

### 가. 행복 약 만들기(관점 바꾸기,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수업)

‘행복은 마음에 달려 있다.’는 관점 바꾸기 수업을 통해 부정적인 정서보다는 긍정적인 정서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수업을 진행하였다.

나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가족을 위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행복약 만들기 수업을 진행하였다. 약포지는 온라인에서 구매하고 약 봉투는 직접 제작하여 학생들에게 글과 그림으로 편지를 적도록 하였다. 특히, 약을 조제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편집하여 학생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신과 갈등이 있거나 항상 걱정과 불만으로 행복하지 않은 가족에게 긍정적 메시지가 담긴 행복 약명(행복해지는 약, 웃음 넘치게 하는 약, 돈 많이 버는 약 등)과 그림을 약포지에 적고, 견과류 초코볼 등을 담아 밀봉하고, 약 봉투에는 그림 카드 형식의 편지를 적어 가족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이 조제 한 약명이 자신을 돌아보고 긍정적으로 생활하며 지내는 계기가 되었다며 약 봉투를 가방에 넣어 두고 볼 때마다 웃음 지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최근에는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수업에서 친구에게 2일분의 행복 약(짜증 나지 않게 화창한 아침이 되는 약, 피곤한 점심시간 계속 행복하게 유지하는 약, 근심 걱정 없이 행복하게 잘 수 있도록 해주는 약, 정신을 차려서 하는 일을 잘해서 행복해지는 약, 지루한 점심시간 활발하고 행복하게 유지해주는 약, 오늘도 좋은 밤 약)을 약을 지어 전하는 수업을 진행하였는데, 학생들이 ‘친구가 주는 메시지가 긍정적이고 자기 마음을 알아주어 힘이 나고 기분이 좋았으며 매우 행복하였다.’라는 수업 소감을 학급 밴드에 남겼다.적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도덕 수업을 진행하였다.



부모님 행복 약



친구 행복 약



약 봉투, 약포지



밴드 글

밴드에 적힌 친구들의 이야기 모음 \*재미있었고 먹을 때 행복했다. \*만드는 것이 재미있었고 신기했으며 약이 맛있어서 행복했답니다^^. \*약을 먹을 때 재밌게 만들던 기억이 떠올라서 먹을 때마다 행복한 마음으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만들어서 재미있었고 먹으면 행복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만들 때랑 먹을 때 둘 다 행복했어요.

## 나. 1일 3 감사 쓰기 도전! 성취프로그램 운영 (감사하기 수업)

“감사는 인생의 시크릿이다.”라는 말과 함께 학생들에게 서울대 행복연구센터에서 제공한 영상을 시청하고, 특히 오프라 윈프리의 성공담을 바탕으로 1일 3 감사 쓰기를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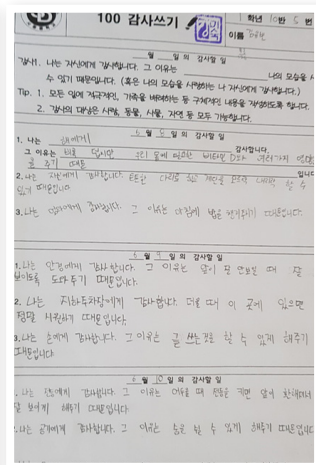
작년에는 도전! 성취프로그램으로 ‘1일 3 감사 쓰기’로 한 달 100 감사 쓰기에 도전하여 매달 단계별 인증, 500 감사 쓰기에 도전하도록 하였다. 인증받은 학생들의 일기는 제본해서 제공하였다. 우수 상품 전달과 함께 소감 후기를 작성한 결과, “처음에는 귀찮았지만 감사 쓰기를 통해 소확행

(소소하면서 확실한 행복)을 알게 되었으며 매사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이 생겨 행복한 일상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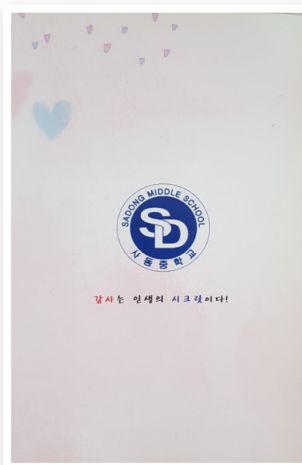
감사 쓰기 후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등교를 매일 못하니 삶이 지루하고, 하루 동안 감사한 일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하고 지냈는데, 감사 쓰기로 인해 하루하루가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종약~~~ 100개, 200개...다 쓸 때마다 너무 뿌듯하고 내가 이렇게 많은 감사를 받았다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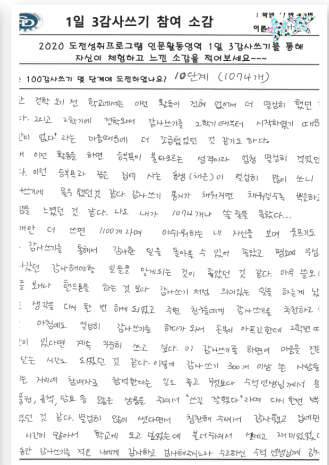
감사 쓰기 제본 표지



1일 3 감사 쓰기 양식



감사 쓰기 장 뒷면



1,000개 감사 쓰기 학생 소감문

## 다. 자신만의 행복 공책 만들기

캐럴 드웁(스탠퍼드 심리학교수)의 마인드셋팅 검사를 통해 고정형마인드셋보다 성장형마인드셋을 가질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하였고, 특히 학생들에게 자신에게 주고 싶은 선물 고르기를 통해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덕목을 알게 하고, 서울대 행복연구센터에서 제공한 ‘강점 찾기 검사지’를 통해 자기 대표 강점을 찾아 일상생활 및 미래 직업인으로서 실천할 내용을 세 가지 이상 적도록 하였는데,

학기 초 자신에게 주고 싶은 선물에서 고른 가치와 대표 강점이 일치하는 친구들이 많았으며, 목표 세우기, 의미하기, 몰입하기 수업에서도 자신의 강점 중심으로 활동지를 작성한 결과를 통해 1학기 17차시 진로 탐색 수업이 일관성 있게 진행되어 스스로 놀랍고 신기하였으며 매우 만족스러웠다.

참고자료: 밴드 <https://band.us/n/a9a06aY1a7McA>



### 3 무엇을(삶의 자세)

2020년~2021년 본교 자유학기제 1학년 1학기 창의적체험활동(진로 탐색) 시간을 활용하여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행복 수업을 17차시 실시하였다. 행복 교과서의 단원 내용을 재구성하여 자신에게 ‘행복한 삶이란 무엇인가?’를 시작으로 자신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특히, 삶의 자세 단원인 목표 세우기, 흥미하기, 몰입하기 수업을 중점적으로 실시한 수업 사례이다.

#### 가. 목표 세우기

중학생이 되었지만, 학생들에게 자신이 원하는 진로, 꿈이 무엇인냐고 물어보면 “없어요”,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라고 대답하거나 꿈은 있지만 막연한 상태이고, 자신의 진로 설정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다. 그래서 꿈을 정하고 준비하기 위해 실천해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꿈 목록 정하기, 나의 버킷리스트 및 장래 직업 준비하기

중심으로 활동지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리고 꿈 지도 그리기를 통해 자신의 꿈을 중심으로 장래 희망, 인간관계, 좋아하는 것, 목표, 버킷리스트 등을 세분화하여 비주얼씽킹 맵(마인드맵) 형식으로 표현하며, 실천 의지를 다지는 수업하였다.

#### 나. 흥미하기

코로나19로 온라인 수업 및 교실 내 수업 후 바로 하교를 하는 등 교실 이외 행동에 제약이 많았던 작년 1학기, 흥미하기 수업으로 학생들에게 학교 지도 그리기를 통해 중학교 생활 계획 수립 수업, 긍정적인 미래 흥미하기로 자신의 진로 계획에 맞추어 미래일기를 상상하여 작성하는 수업, 등곳길 흥미 에세이 적기 수업 등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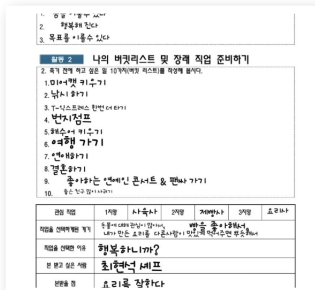
또 환경교육과 연계하여 등곳길 주변의 자연을 자신으로 의인화하여 매일 관찰하고 흥미한 감정을 꿈과 연계하여 적는 한 달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학생들은 매일 나무에 물도 주고 보살피며 자신의 꿈을 실천하고 다짐하는 글을 작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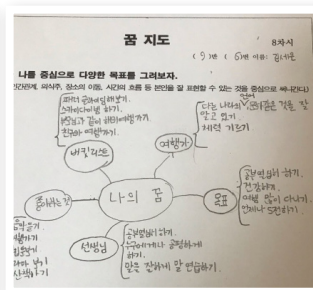
## 다. 몰입하기

몰입과 중독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특히, 장래 직업 준비로 게임에 몰입하고 있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바른 삶의 자세가 필요함을 알려주고자 실시한 수업이다. 서울대 행복연구센터에서 제공한 동영상과 PPT 등을 활용하여 낙서를 좋아하던 사람이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된 사례와 관련지어 ‘낙서로 알아보는 나의 직업생활’ 수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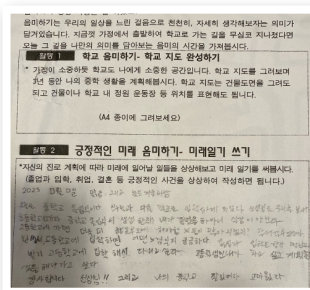
먼저 낙서를 통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도록 하고, 낙서장에서 세 가지 그림을 찾아 자기 행복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표현하도록 하였다. 또 음악 수업의 감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한 ‘사계의 가을’을 몰입해서 듣고 자신의 느낌을 그림으로 그리고 설명을 적도록 하였다. 다양한 느낌과 생각을 표현한 학생들의 작품을 보고 순수함과 진솔함, 뛰어난 창의성을 엿 볼 수 있었다.



목표 세우기  
(장래 직업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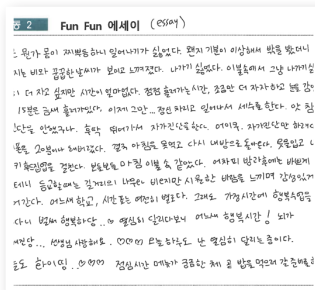
꿈 지도(목표) 그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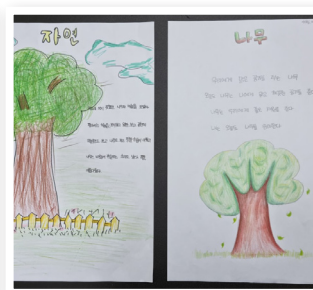
미래 일기 쓰기(음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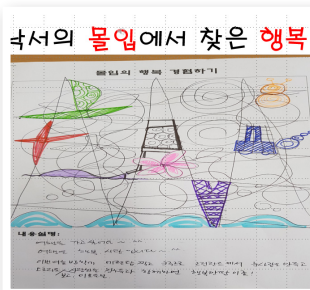
학교 지도 그리기(음미)



음미 중수필(개인)



음미에세이(모듬)



낙서에서 찾은 행복(몰입)



사계 감상(몰입) 표현





#### 4 누구와(관계 증진법)

관계를 여는 행복 수업은 프로젝트 수업으로 진행했다. ‘관계를 돈독하기’, ‘나누고 베풀기’, ‘용서하기’ 내용을 재구성하여 ‘가족 및 친구(마니토) 칭찬하기’, ‘내가 만드는 좋은 관계’, ‘우리가 만드는 좋은 관계’라는 주제로 실시하였다. 특히, 인간관계를 가족, 친구, 학급 전체로 확장하여 관계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실제 생활과 연결하여 프로젝트 수업으로 진행하였다. 학생들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둘러싼 관계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감사와 행복의 마음을 갖게 되었으며, 이는 바른 인성 함양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가. 가족 및 친구(마니토) 칭찬하기 프로젝트

‘관계를 돈독히 하기’ 동영상(서울대 행복연구센터)을 시청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나의 삶에 중요한 이유를 학습지에 적고 모둠별 나눔을 통한 공유의 시간을 가졌다. ‘엄마가 울었어요’ 동영상 시청 후 자신에게 던지고 싶은 메시지 작성하고, 가족 칭찬하기 프로젝트 대상과 선정 이유를 활동지에 작성한 후에 한 달 동안 칭찬일기를 적도록 하였다.

A 학생: 칭찬일기를 쓰면서 가족들한테 칭찬을 매일 한마디씩 했는데, 서로에게 고마웠던 것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어 더 화목해졌다.

B 학생: 처음에는 내 동생이 얄밉기만 했는데 한 개씩 칭찬을 적다 보니 ‘내 동생의 장점이 많았구나’ 느꼈다. 시작할 때는 무슨 장점을 찾으라는 거야 했지만, 감사 쓰기를 할 때처럼 작은 것들을 칭찬했고, 그만큼 더 내 동생을 유심히 살펴보면 동생을 더 소중한 존재로 여기게 되었다.

다음으로 마니토를 정하여 한 달 동안 매일 칭찬일기를 적도록 하였다. 비밀을 유지하며 관계를 돈독히 하도록 지도하고 2,000원 마니토 쿠폰을 제공하여 학교 앞 문방구에서 선물을 고른 후 일기장과 함께 전달하고 인증 사진도 찍고 소감문을 작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소감문은 마니토 일기를 작성하면서 느낀 점과 칭찬일기를 받고 난 후의 소감문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한 친구의 소감문이다. \*처음에는 친구의 좋은 점을 어떻게 찾아 칭찬할지 걱정되고 고민되었다. 하지만 친구의 부정적인 모습보다 긍정적인 모습에 초점을 맞추어 관찰해보니 좋은 점을 찾을 수 있었고, 친구의 장점이 많다는 것을 알게~~생략

칭찬일기를 받고서 마니토가 나를 성실하고 배려심이 많고 친절하다고 구체적으로 칭찬해주어~~생략 고마웠다. 앞으로 마니토가 적어준 칭찬일기 내용처럼 친구를 배려하고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해야겠다.



마니토 칭찬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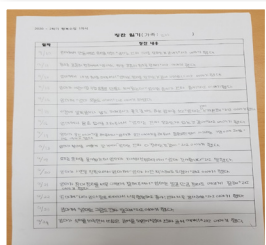
칭찬일기와 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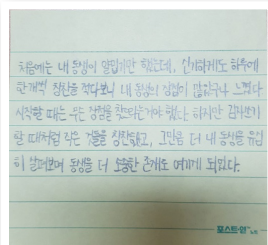
일기 및 선물 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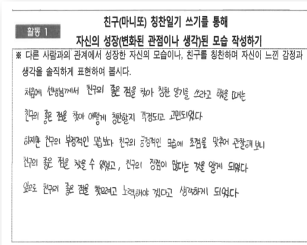
인증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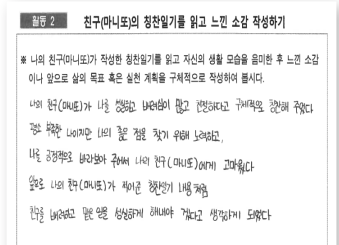
가족 칭찬일기



가족 칭찬일기 소감문



칭찬(마니토) 일기 작성 소감문



칭찬일기 받은 후 소감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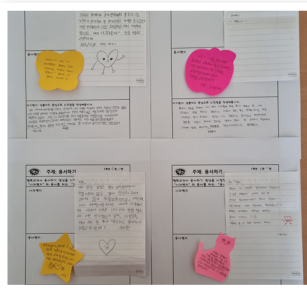
## 나. 내가 만드는 좋은 관계

가족 다음으로 만나는 친구와 좋은 관계 유지를 위해 친구와의 관계가 어떠한지, 사이가 안 좋다면 예전처럼 사이 좋게 지내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학습지에 자기 생각을 적는 활동을 하였다. 다음으로 혹시 요즘 힘들어하거나 지친 모습을 본 친구가 있는지 물어보고 친구를 위해 일주일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작성하고 실천하도록 한 다음 나눔 활동을 하였다. 그런 다음 ‘용서하기’ 영상과 PPT를 중심으로 교사 설명 후 용서를 구하는 사과 편지와 화해의 용서 편지를 작성하고, 공개적으로 사과 편지를 읽어 주며 사과를 선물하고, 용서하는 친구는 용서의 편지를 읽고 초콜릿을 선물로 주는 활동을 하였다. 올해는 친구와 교정을 걸으며 지난 1년을 음미하고 교실로 돌아와 성품 카드를 활용하여 자기평가 시간을 가졌다.

학생 소감: 처음에는 좀 머쓱하고 어색하였지만 웃음 넘치는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좋았다. 평소 직접 말로 표현하지

못하여 관계를 예전처럼 회복하기가 힘들었는데 수업 시간을 통하여 기회가 주어져서 좋았고, 사과 편지를 전한 이후 친구 사이가 더욱 돈독해졌다. 기회를 주신 행복 선생님께 정말 감사하고 고맙다. 코로나19로 우울한 마음을 해소할 수 있는 수업이었다. 사과를 받아 주며 사과를 먹을 수 있어 좋았고, 친구를 용서해주고 달콤한 초콜릿을 함께 먹을 수 있어 더욱 기분이 좋았다.

자기평가: 편지를 쓰려니 막막하고 당황스러웠는데 친구에게 편지를 전하고 나서는 흥분되고 통쾌하며 활기찬 느낌이 들었다. 친구에게 마음을 전하고, 그 친구도 자신의 마음을 전해주며 서로의 솔직함과 생각들을 알 수 있는 기회여서 좋았다. 서로의 용기 있는 행동은 서로에게 믿음을 주고 바른 인성을 배우게 되는 것 같다. 친구와 함께 대화를 나누며 좀 더 친해질 수 있었고, 그런 소중한 친구에게 나는 책임감 있고 의리 있는 친구가 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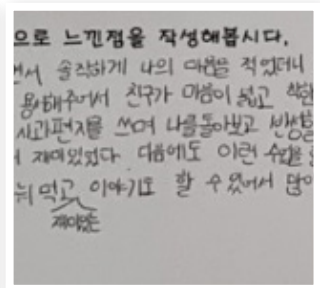
사과 및 용서 편지



편지와 사과, 초콜릿 전달



인증 사진



자기평가(소감문)

## 다. 우리가 만드는 좋은 관계 (민주적 학급공동체 만들기)

학급공동체의 중요성 인식을 위한 수업으로 작년에는 블렌디드 수업, 올해는 대면 수업으로 진행하였다. 민주적 학급공동체의 구성을 위한 모둠 구성, 선거 포스터 작성, 투표 활동 수업을 위해 1차시에 브레인스토밍으로 행복한 학급을 위해 필요한 요소 알아보기, 개인별 학습지에 정당, 공약, 정책, 대통령 후보 추천, 선거 포스터 밑그림 그리기를 하고, 2차시에 모둠별 선거 포스터 작성을 위한 토의 활동을 진행,

3차시에 모둠 선거 포스터 4절지에 완성하기, 4차시에 선거 공약 발표 및 학급 대통령, 지지 정당 투표(스티커 활용)하기, 활동 후 소감 작성으로 진행하였다.

학생 소감: 이 활동을 하며 친구들과 직접 실제 선거처럼 공약을 정하고 정책도 정했다. 귀찮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지만, 함께 서로 아이디어를 내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재미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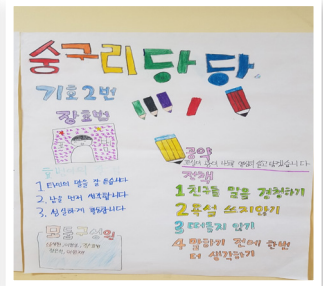
선거 포스터 작성



공약 발표



투표 스티커 붙이기



최종 결과 선정

## 03 행복 수업은 아직도 진행 중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는 말이 있다. 벌써 행복 수업을 10년 동안 실시하고 있다. “교사가 행복해야 학생이 행복하다.”라는 말을 실감하며 끝까지 노력하고자 한다. 매년 서울대 행복연구센터의 교수님들과 연구원, 행복 수업을 실천하는 전국의 교사들과 함께 토요일을 반납하며 공부 중이다. 그 시간이 너무 즐겁고 행복하다. 그래서 조금씩 변하는 학생들의 모습에 만족도 100%로 교실에 들어가는 순간 춤을 춘다.

학생이 춤추는 행복 교실을 위해 교사는 무대의 광대가 되어야 한다. 2년 반이면 교직 생활을 마감해야 하는 데 걱정이 다. 그 전에 우리 경상북도에도 행복가구(행복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모임)의 물결이 잔잔히 전해지길 간절히 기도한다. 오늘의 작은 나눔이 선생님들의 가슴에 큰 파도로 다가가길 바라며 밴드에 올라와 있는 우리 학생들의 소감을 나누며 행복을 가르치기 위해 아직도 연구하는 교사의 글을 마친다.

~~~ 행복 수업 소감문~~~

- \* 행복이란 내가 모든 게 좋다고 느낄 때를 말하는 것이다
- \* 행복이란 나와 주위 사람들이 행복해야 하는 것인 것을 알았다.
- \* 남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행복에 대해 더 고민해볼 수 있었다
- \* 남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한다는 것.\*작은 나눔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그 행복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퍼져나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 행복 수업이란 나의 행복을 찾아주는 수업이다
- \*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 수 있었고 행복은 꼭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 \* 나에게 행복 수업이란 나를 한 번 더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 \* 행복 수업을 들으며 뭐든지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했다
- \* 행복 수업을 하면 나의 행복을 찾는 것 같아 좋았다. 내년에도 하고 싶다
- \* 나에게 행복 수업은 행복을 찾게 해주고 나, 그리고 진로에 대해서 깊게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해주었다.\*오늘 영상을 보고 베풀고 나누는 삶이 다른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도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겠다.
- \* 나에게 행복 수업이란 나 자기 삶과 태도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된 시간이자 진짜 행복이라는 감정에 대해 더욱 깊숙이 알게 되고 행복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 \* 중학교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행복 수업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거 왜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막상 하니깐 행복이란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단어인 것 같고 나만 행복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나누어 그 사람들도 행복해야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더 많은 소감과 수업 자료는 행복 수업 밴드 (<https://band.us/n/a9a06aY1a7McA>) 참고

## 오늘도 특성화고에서 행복한 교사로 거듭나는 중

윤송미 경북기계금속고등학교

### 1.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가. “너 자신의 무지를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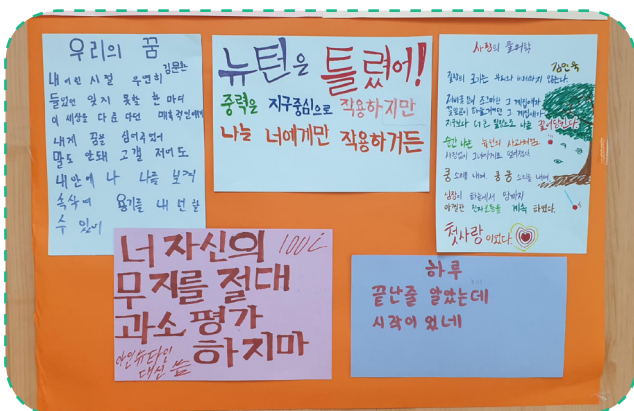
가명이는 듣고, 이해하고, 질문하고. 수업에서 주고 받는 즐거움을 느끼게 해 주는 학생이다.

과학실 게시판에 어울리는 자료를 만들 것을 제안하고, 아인슈타인 명언 몇 가지를 보여줬더니, 소크라테스가 생각났는지 이렇게 만들었다. 가웃했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의 무지를 알라> 아닌가?’ 이런 문장 뭔가 어색하다 싶은데 도형이가 해맑게 웃는다.

“쌤았, 진~짜 멋있지 않아요?” 손가락은 리듬을 타며 지휘하듯 자랑스럽게. “너, 자신의 무지를 절! 대! 과·소·평·가 하지~ 마!” “응~ 그렇네...” 조금이라도 실망스러운 마음이 비칠까 조심하며 답했다.

전교를 통틀어 과학실 게시판용 작품은 문장이나 꾸밈이나 끝내 마음에 꼭 드는 것이 없었지만, 조금 더 깔끔하다는 이유로 내가 만든 것보다는 아이들 손으로 직접 만든 게 나을 것 같아 아이들이 만든 것을 모두 게시했다.



과학실 게시판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눈에 띈다. 곱씹을수록 멋지다. 처음에 느꼈던 문장의 어색함도 전혀 없다. 저 카드를 보면 가명이의 색깔이 톡톡 떠오른다.

“이런 게 오롯이 학생의 작품인 거지! 그래, 이런 게 창의적인 거지! 이렇게 다른 문장이 자기 문장인 거지!”



## 나. 학교 통일교육 연구 - 정답은 없다.

세라믹 펜을 알게 되었다. 흰 접시에 그림을 그리고 오븐에 구우면 접시가 완성. 열처리를 통한 변성이 과학이거니와 가마에서 도자기 굽듯 접시를 굽는 예술 활동이겠다.

집에 가져가 쓸 수 있는 자기만의 접시라니 유용하고 흥미롭겠다. **학교 통일교육 수업연구**를 하던 차, 남북 평화 통일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은 접시나 컵을 만들어보기로 했다.



통일교육 수업 모습

기대로 시작한 첫 반, 미리 디자인을 생각해 온 녀석이 없다. 앞서 공들인 시간이 떠올랐지만, 새롭게 시작, 이 시간에 충실하기로 한다. 그림을 잘 그려서 예쁘면 좋겠지만, 아니어도 꼭꼭 눌러 담은 기도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격려하면서, 그래도 참고하고 싶은 이미지가 있으면 인쇄해 주겠다며 인터넷이 연결된 TV를 켜다. 북한 국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국화는 무엇인지 물어본다. 차례로 보여주고 나니 인공기를 띄워 달란다. 더 찾는 학생이 없어서 남은 시간 TV에 인공기가 띄워져 있었다. 이 반에서는 한반도, 태극기, 인공기, 무궁화 접시가 대부분이 되었다.

다음 시간, 사고를 오히려 가뒀나 싶어 검색 요청이 없자 TV를 껐다. 그래도 무궁화, 태극기, 한반도는 비슷했다. 애초에 샘플로 보여줬던 작품은 보름달 아래 솟대, 기도하는 사람, 바다로 가 만나는 강물, 꼬꼬 재배하는 남과 북 등 평화, 하나, 우리, 기도의 의미가 담긴 것들이었다. 잠시라도 평화롭고 따뜻한 마음을 가져보는 것, 그 마음을 그리는 것, 그런 것이 통일 운동이 아닐까. 괜찮은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는 나의 기대와 달리 실망감이 올라왔다. 상점, 수행평가, 흥미와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내적 외적 동기 부여까지 충분한 안내를 할 만큼 했다고 생각했는데... 패인이 어디에 있는 걸까 고민하던 중 마지막 반이 돌아왔다.



통일 기원 접시 샘플

여태 보지 못했던 열정과 성의가 등장. 미리 내어 준 도안지를 빼곡히 채워온 대부분의 학생. 교실이 빛난다. 그러은 도안을 자랑스럽게 보이며, 서로 이야기하는 걸 보는데 가슴이 웅장해진다. 본격적으로 그리기 시작했더니 집중의 열기로 교실이 후끈하다. 당연히 작품의 격이 달랐다. 나명이

의 찢어진 남과 북을 손 내밀어 붙이는 작품, 통일이 가진 강하고도 부드럽고 평화로운 이미지가 잘 드러난 다명이 작품, 특히 라명이의 하나 되어 모두가 둥글게 손잡은 작품과 마명이의 남북을 한 나라로 표현한 세계지도 겹은 통일부에 알려줘야 할까 내놓아 팔아도 손색없는 아이디어다 싶었다.



1학년 정밀기계과 1반 작품활동 모습과 작품

똑같이 수업하고 안내했는데 어떤 반은 수업 시간 밖에서 고민해 온 학생이 한 명도 없고, 어떤 반은 대부분이 해 온다. 고민해 오지 않으면 할 것이 없고 그제라도 할 의지도 없다. 접시와 펜이 있지만 뭘 해야 할지 모르는 아이들은 속닥이거나 자거나 선생님과 눈이 마주치면 하는 듯 끄적이다 종이 치면 썰물처럼 빠져나간다. 기껏 한다는 것이 한반도지도, 38선, 빨강색 파랑색, 인공기와 태극기를 끄적이고 마는 것이다. 대부분의 학생이 그랬던 첫 번째, 두 번째 반을 지나면서 내가 준비했던 시간이 무용지물이 된 것 같아 허망했다.

신기하게도 나의 에너지가 꺼질 때쯤에는 열정의 학생, 반이 어김없이 나타나 다시 정신을 차리게 한다. 나를 살필 여유가 생기고 나서야 그 순간의 아이들이 들어온다. 지윤이는 견원지간(?)이라며 개와 고양이 사이처럼 남북은 양숙인 듯 하지만 그렇게 정이 들어 결국 한 가족이 되는 모습을 컵에 담았다. 고양이 털 하나 개의 귀 한쪽까지 꼼꼼하게도 진심을 담았다. 수업 때는 몰랐는데 이제 보니 명작이다. 그림 실력보다 통일을 생각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했던 사람 그땐 어디 있었을까.

인생은 사람 수만큼 있다고 한다. 정해진 답이 없다는 뜻이다. 그런데 학습 목표가 있고 여럿이 모인 수업 중에는 '다름'이 아닌 '문제'로 인식될 때가 많다. '문제'였던 수업은 끝이 나도 잔상이 남고 복기해보면 진짜 '문제'는 내 마음속에 이상적인 수업이 이미 정해져 있었다는 결론에 다다른다.

1년 전, 멸종 위기 야생생물 보호 포스터 만들기 때도 비슷했다. 반마다 두세 시간을 들였는데, 수업 중에는 '이렇게 밖에?'라는 실망감이 있었고 모든 작품이 전시된 후에 혼자 감상하면서는 '이렇게 멋진?'이라고 생각했다. 한 쪽 구석 저어새의 엷지 끝판왕 까만 장화를 보고 수업 당시에 그 멋진 발견을 놓친 것을 알아차렸다. 그 덕일까, 올해는 한결 편안했다. 5분 만에 휘 끝내는 아이도, 두 시간을 내 꼭꼭 눌러 그리는 아이도 모두 그 나름의 참여 방식임을 수용했고, 응원할 수 있었다.





멸종위기 야생 생물 보호 포스터가 전시된 과학실 복도, 저어새의 까만 장화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2020년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 감독상 수상 소감 중에 영화 공부할 때 가슴에 새겼던 말이라고 소개했다. 아이들과 함께했던 많은 순간들, 사소했고 위대했던 그래서 내 안에

명확히 정의되지 않았던 기억들이 가장 창의적인 순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다. 아이들과 함께 하다 ‘문제’로 인식되어 불편해지는 때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나의 교육 철학이 되었다.

## 2. 우리, 오늘, 이 수업은 다 처음이잖아요.

평화 통일 기원 품을 만들 때 접시나 컵 중 선택 할 수 있도록, 또 성실히 더 만들고 싶다면 그럴 수 있도록, 집에서 가족과 함께 쓸 컵과 접시라니 의욕에 차 두 가지 이상 만들 것도 같아 넉넉히 준비했다. 열의에 차서 집중한 모습이 그려져 신이 난다. 컵이든 접시든 한쪽으로 몰리면 어찌나 했는데, 첫 번째 반에서 컵이 상당수 나오더니 이후 연달아 대부분이 접시를 택했다. 컵이 많이 남았다. 두 개 이상 만드는 학생은 아무도 없었다. 접시도 많이 남았다.

수업 준비는 이렇게 해볼까, 저렇지 않을까 판에는 과학적 예측과 추론을 하지만 장고 끝에 계획한 수업이 예상과 달리 흘러갈 때가 많다. 내 예상과 꼭 맞는다고 좋은 수업인 것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나쁜 것도 아니다. 내 생각대로만 수업이 흘러갔다면, 그것이야말로 문제 아닌가. 그렇지만 신나게 컵과 접시를 만들며 기뻐할 학생들을 생각했는데, 남아있는 것들을 보며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수업은 끝났지만 ‘내가 이렇게 안내했으면 달랐을까?’ 나는 수업을 끝내지 못하고 여전히 거기에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보려는 노력은 아이들에게만이 아니라 나에게도 계속 해야 한다. 실험 재료 수량 예측부터 오고가는 대화 속에 일어나는 배움에까지, 사실을 넘어선 불필요한 동일시를 거둔다. 후회나 책망을 거둔다. “오! 그렇구나!” 수용하고 바라보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래야 다음을 새롭게 준비할 수 있다.



특성화고 2년 차, 탐구 실험을 야심차게 준비한 어느 날이었다. 소금물을 이용하는데, 내가 만들어 줄 수도 있었지만, 비커, 전자저울, 약순가락을 잡을 기회이고 그 자체로 ‘측정’ 활동이니 직접 만들기로 했다. 본격적인 실험은 그 이튿날 오후였다. “니가 가라(개수대에 물 뜨러),” 가위 바위 보를 시작으로 “선생님 물 25mL 어느 걸로 해요?” 처음엔 비커 크기가 달라 묻는 줄 알고 “비커 크기가 달라도 25mL에 맞춰서 눈금이 있으니 어떤 비커든 표시된 대로 담으면 돼.” 친절히 설명하고 뿌듯하게 돌아서는데 “아니 한 비커에 25mL가 두 칸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 놀라 봤더니 아이코야. “이거지” 무심코 넘겼는데, 다음 반에서도 똑같은 질문을 한다. 특별

한 한 명의 문제가 아니다 싶어 “얘들아, 잠시 주목! 이 비커에 25mL가 두 칸데 표시되어 있는데, 물을 어디까지 담아야 할까?” 나의 예상과 달리 웅성웅성 비커가 불량이라는 둥 난리가 났다.

결국 ‘오른쪽’ 25mL로 결론이 나고서 평화를 찾았고 다시 실험을 시작하려니, 이제는 “소금 2g 넘었는데 어떻게 해요?”, “소금 흘렸는데 어떻게 해요?”, “약순가락으로 저어도 되나요?”, “애 보세요!” 혼자 남아 과학실을 정리하다 난 뭘 한 걸까 웃음이 났다.



문제의 비커

원래 수업 목표였던, 정작 그 소금물로 무얼 했는지는 기억에 없고 소금물 만들던 과정만 생생하다. 더 재미있는 건 두 반 수업하면서 문제를 확실히 깨달았다고 생각, 세 번째 반부터는 처음부터 비커를 들어 보이며 왜 이렇게 생겼는지, 그래서 어디까지 담아야 할지, 실험하다 소금을 흘리면 어떻게 할지 다 안내했는데 결과가 같았다는 것이다.

내가 안내를 하든 칠판에 쓰든, 학습지에 써 주든 상관없이, 비커를 들고 물을 담을 때 얼마만큼 담냐고 묻고, 소금을 넣고 나서야 어떻게 짓냐고 물어보고, 소금을 흘리고 나서 어떻게 할지 물어봤다.

여섯 반 수업 안내를 계속 업그레이드하며 했는데 학생들 반응이 똑같았던, 나에게 아주 인상 깊은 사건이었다. 그 이후 실험 수업을 고안할 때는 통상적인 탐구 활동보다는 우리 아이들이라면 어떻게 할까, 우리 아이들과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

반마다 똑같이 설명하는데도 전혀 다른 수업이 되기도 한다. 실패가 아니다. 우리, 그날, 그 수업은 모두 처음이었다. “오! 그렇구나!” 평가와 판단 없는 수용, 그 외의 것들은 거두기로 한다.



덕분에 이후로는 어떤 수업이든 첫 반은 좀 긴장하고, 살피고 서로 조율하며 진화시킬 수 있었다. 내가 계획한 대로 수업하겠다는 열정을 좀 거두고, 아이들을 살피며 그 날,

그 때에 맞게 변형시킬 수 있는 유격을 좀 두고부터는 수업이 훨씬 편안해졌다. 돌아보면 즐거운 시간도 많았다.



스파게티탐쌍기



지구시스템 발표 수업



발효빵 만들기



세계발효음식문화포럼



비행기 날리기



간이전동기 만들기



### 3. 과학?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

직업교육 위주의 우리 아이들에게 과학 시간에 내가 줄 수 있는 것에 대해 가장 고심하는 것 중 하나는 자연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어제의 과학이 오늘의 거짓이 되는 일이 부지기수다. 과학 지식은 완전하지 않다. 나에게 과학은 자연의 신비를 더듬으며 만나는 아름다움이다. 대자연 앞에서 숙연해지는 경외를 경험하게 하고 싶다. 인간의 영혼은 그럴 때 정신을 번쩍 차리고 바로 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 방편 중 하나로 과학 실험 재료는 가급적 자연물로 한다. 텃밭 가꾸기가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개인용 화분 가꾸기로 직접 씨앗을 심고 키워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 알아보니 흙을 따로 팔았다. 실내용 화분으로 플라스틱 통은

물론 흙, 비료를 같이 판다. 내가 가르치고 싶은 것은 작고 메마른 씨앗이 흙 속에서 때를 만나면 쑥쑥 자라 상추도 된다는 것이다. 씨앗이 가진 생명력을 눈으로 보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자연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했다.

매일 보는 땅, 밟고 다니는 땅에서 흙 한 줌을 덜어 씨앗을 움 톱워 보면 왜 대지를 어머니라 부르는지 알고, 지구 전체를 숨 쉬는 유기체로 볼 수 있을 것 같았다. 플라스틱 화분을 사는 문제야 집에 노는 통, 혹은 일회용 음료 잔 등으로 대체할 수 있으니 문제가 아니었다. 송곳으로 물 빠지는 구멍을 뚫는 것도 공작 실습이 되니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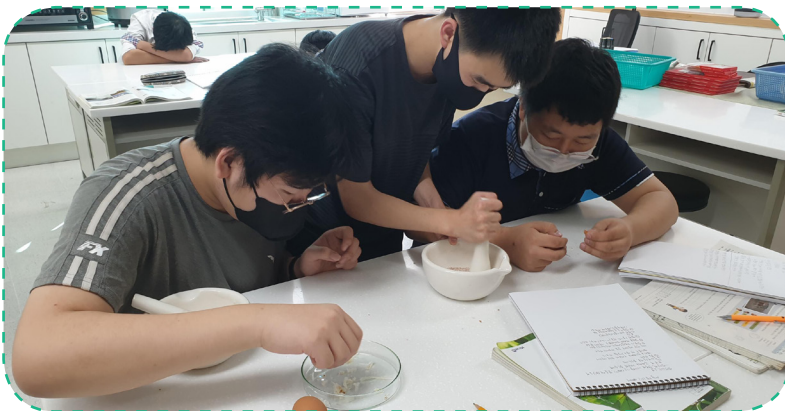
그런데 택배로 흙을 배달시키고, 과학적으로 배합된 그 흙으로 생명을 싹틔우는 건 과학 지식의 일부를 진짜 과학이라고 받아들이게 할 것 같아 내키지 않았다. 자본의 원리가 개입될수록 본질과는 멀어진다. 자연의 신비는 지천으로 널려 있어 눈을 뜨기만 하면 언제든지 닿을 수 있어야 한다. 나에게 과학 교육은 자연과의 그런 직통을 돕는 것이다.

아쉬워하던 차에 교과서에 토양의 산성화와 석회 비료 이야기가 있었다. 달걀껍데기로 석회 비료를 만들어 보기로 했다. 실습재료는 달걀, 식초, 막자와 막자사발이 전부. 이렇게 진정 친환경 수업이지! 아이들이 오기 전 대형 보온 밥솥으로 달걀을 한 판 삶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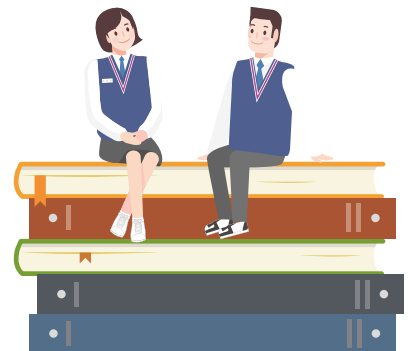
토양의 산성화에 대해 책을 보며 이야기 나누고, 석회 비료 만드는 법을 찾았다. 밥솥에 증기가 오르고 완성이 되면

달걀은 맛있게 먹고, 껍질은 막을 분리하여 막자사발에 담는다. ‘껍질과 막을 꼭 분리해야 한다. 잘게 갈아보자.’ 두 가지 미션을 주었다. 껍질과 막을 분리하는 데 심취한다. 조

용한 분리의 시간이 끝나자 쿵쿵 쿵쿵 시끌시끌해진다. 두드리는 것보다 문지르는 것이 더 잘 갈린다고 하자 여기저기 멧돌 가는 소리가 대단하다. 그만하려는 찰나, “어머니! 이 조는 완전 밀가루를 만들었네?” 진심으로 놀란 목소리 때문이었을까. 팔뚝에 모터를 단 듯 여기저기서 와아 왕 같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가루 만들기 대회장이 되었다. 나보다 훌쩍 큰 아이들이 “이 정도면 됐어요?”, “저 잘했죠?” 브레이크 없는 갈기 대회장의 열기는 종이 치고도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달걀 껍질로 석회 비료 만들기



이 수업으로 나는 무엇을 하려 했고 무엇을 얻었을까. ‘뿌리혹박테리아가 질소 화합물을 합성해서 산성화된 토양을 중화시킬 수 있다’ 같은 과학 지식을 전하는 것이 나의 역할이라 생각했던 때가 있었다. 지금의 나는 삶은 달걀을 기다리며 밥솥에서 오르는 증기를 보다 ‘퍽’ 하고 깨지는 소리를

함께 듣고 놀란 순간이나, 가루 만들기 대회인 줄 착각할 열정의 멧돌 소리를 기억하고 싶고, 기억할 것이다. 달걀을 손에 들었을 때 어미 닭이 알을 품어 낳은 생명력을 그릴 수 있길, 달걀 껍데기가 가루가 되어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대한 순환 개념을 얻길 기대한다.

아이들에게는 무엇이 남았을까? 학년말 과학 시간에 했던 것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을 써 보게 했는데, 바명이가 ‘달걀 냄새가 이상했지만 단단한 껍질이 가루가 되는 게 엄청 신기했다.’라고 이 시간을 언급했다. 몇 번을 다시 읽으면서, 내가 의도했던 수업과 바명이가 기억하는 수업의 간극을 더듬어 본다. 달걀 껍질의 단단하기는 손으로 부실 수 있

을 만큼이지만, 그것을 완전히 가루로 만드는 것을 본 적 없고, 상상해보지 않은 일이니 눈앞에서 십여 년간 가졌던 달걀 껍데기에 대한 상이 깨지는 일이었으리라. 이런 게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는 순간일까? 음... 새해에는 상추 씨앗을 직접 심고 싹틔울 방법을 찾아 봐야겠다.

#### 4. 그래도 태양은 뜨고 새날은 온다.

한때 선풍적이었던 효리네민박에서 연기도 노래도 그만인 아이유가 이효리씨에게 물었다. “언니는 가장 자신 있는 게 뭐예요? 이거는 정말 쉽지, 이런 거요.” 방송도, 노래도, 어느 한 곡도 쉬운 게 없어서 언니는 어쩔지 물어보고 싶었다.

신규만 벗어나면 나아질 줄 알았다. 3년이 지나면, 5년이 지나면 나만의 노하우도 생기고 자신감 있는 뭔가 하나는 생길 줄 알았다. 교단에 서는 날이 두려운 날은 없을 줄 알았다. 아이유도 효리도 쉬운 게 없다니, 쉬워지는 날은 오지 않을 것 같다.

“쉬운 건 없었던 것 같아. 자신 있다고 생각해본 적도 없어. 그런데 재밌다고 생각한 것은 있어. 예능도 재밌고, 화보 찍는 것도 재밌어. 두려우면 재미를 못 느끼잖아. 그게 자신이 있어서 재미를 느낀건가...”

그래도 태양은 뜨고 새날은 온다.

고군분투. 두렵지만 더듬더듬 총총 오늘도 걸어간다.

특성화고에서 나는 오늘도 행복한 교사로 거듭나는 중이다.

